



월간 문화도시 수원

2021
8
제1호

발행일 2021.08.09 | 발행인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 |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 글 백창현 | 사진 노민규



02	03	04	05	06	07	08
표지이야기	문화도시 수원 사업 돌아보기	김승원 국회의원 인터뷰	이선옥 수원 문화도시 센터장 인터뷰	SUWON X NOWUS의 시민 리더 분과장을 만나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수원 나우어스 모집

실험목장 AGIT



실험목장 AGIT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목장(현 탐동 시민농장)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한 수원의 거점공간

실험목장 AGIT는 “자유로운 공간실험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문화 실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MINI interview

실험목장 AGIT 공간 실험 참가자 '씨드 앤 그로우' 김민지님

*씨드 앤 그로우는 수원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예술로 재미를 찾아주는 단체

“일러스트를 이용해 자연물로 나를 표현해보는 ‘향기나는 미술관 피크닉’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나가서 솔방울도 줌과 말린 꽃을 가지고와서 행복했던 이전의 기억을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화도시란?

문화도시 사업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슬로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18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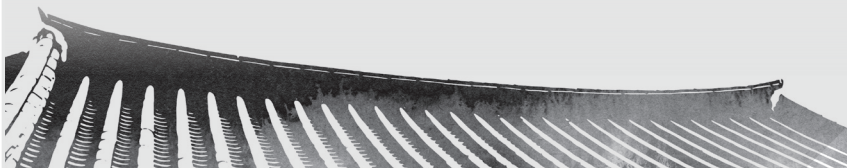
문화도시 수원

수원은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도시문화 경영 전문조직 ‘문화도시센터’

수원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시민’을 가로지르는 매개자이자 연결자이자 촉진자로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수원이 가진 시민력, 문화력, 도시력을 기반으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시의 문화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점을 찾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여 시민 스스로가 시민 주도형, 참여형 인문기반 활동을 통해 실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호에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SUWON X NOWUS(수원X나우어스)’

수원X나우어스는 ‘시민협의체’라는 조금 생경한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볼까요. 수원은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기존의 사업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수원X나우어스’입니다. ‘수원X나우어스’에 참여하는 시민에 제한은 없습니다. 수원시민이거나 수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죠. 또 ‘수원X나우어스’의 멤버는 상시 모집하고 있어 언제든지 참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원X나우어스’멤버들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문화도시 홍보요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나우어스에 참여한 시민리더들의 모습은 6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시작은 소소하지만 대화 모임을 통해 시민이 주도해 만들어가는 문화. 그 가장 기초인 ‘대화’모임 지원 프로그램이 ‘씨티메이커스’입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대화모임은 현재까지 총 277개 모임, 참여인원 1천173명, 모임 2천87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양한 도시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이 일시 중지됐던 주부는 아이들의 역사교육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고, 이를 통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매년 몇천만 원의 관리비가 소모되고 있던 아파트 내 화단을 직접 관리해 주말농장을 만들어 비용도 절감하고 아이들 교육에까지 활용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다고요? 7면에서 직접 ‘씨티메이커스’ 활동을 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수원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도시로 뽑혔는데,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원의 발전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중 대표로 김승원 수원시 갑 국회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김 의원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도시 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수원 장안구에 태어나 수원 화성과 정조대왕 능행차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특히 고교시절에는 수원화성 문화제에 직접 참여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취타대’로도 참가할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의정활동 때문에 문화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술인 등 종사자들과 소통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도시’라는 것에 생경함을 느끼곤 하는데, 문화도시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수원은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금까지 1차로 7곳, 2차로 5곳이 선정됐습니다.”

무대 안팎에서 수원의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힘쓰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원의 시민이 직접 실천하고 답을 구하는 실학정신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깃든 많은 문화유산들과 42만 명의 수원시민 서포터즈 자원봉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원문화재단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차관을 수시로 찾아가 소통을 하면서 이같은 수원의 우수함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수원의 강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 정신이 바로 수원의 강점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돼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발전하는 수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원화성과 화성행궁같은 세계문화유산과 광고산, 서호천 등 아름다운 자연, 5대 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는 교통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에 지난 6월에는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원의 특례시 선정도 예정돼있는데, 문화도시 선정과 일정을 같이하게 됩니다. 특례시로의 수원이 만들어야 할 문화도시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먼저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완벽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수원화성 2단계 복원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화성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이기에 완벽한 복원사업이 마무리 돼야 하겠습니다.

또 광고 등의 신도시와 행궁 등 기존 원도심의 지역특색을 살려야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는 수원만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이 시민 주도 아래 조성되고 관리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원의 자원봉사자 모임인 수원서포터즈를 비롯해 사람이 성장하고 존중되는 문화도시를 만들되 인적 네트워크를 덧

입혀 자원봉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결합해 문화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선출된 30명의 시민리더는 시민들이 문화도시 수원을 이끌어갈 사람을 직접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다양하고 활발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주시길 당부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수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화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며 문화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에 수원문화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원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요소의 활용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져 문화와 콘텐츠를 꽃피우는 문화도시 수원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수원은 어떤 도시일까요?

수원의 어느 공간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로 조금만 이동해도 국내 어느 도시에 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미래 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수원이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 올려진 단단한 원석 같은 도시입니다. 현대와 과거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지만, 조각가가 나타나 정과 망치로 두들기기 전의 원석이라 할 수 있죠.

여기 수원의 모습을 아름답게 조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 '문화'라는 망치로 원석을 두들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이선옥입니다. 청소년기를 수원에서 보내고 대학 이후 서울로 옮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기획 행정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수원문화재단에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수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요. 5년차에 재단 최초 여성부장이 되면서 올해 문화도시센터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수원으로 돌아와서 문화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년 가량 기획자로 일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서울에 문화자들이 너무 몰려있다는 점이었어요. 거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언젠가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은 10대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수원의 원도심은 제가 ‘로망’으로 생각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아파트가 적고 전통시장이 가깝고 수원천이 흐르는 오래된 동네의 정서적 느낌이 좋았거든요. 수원화성이 나를 보호해주는 기분이 종종 듭니다.”

수원은 어떤 매력이 있는 도시인가요?

“과거와 현재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커커이 주름을 만들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수원화성이라는 대표 문화유산과 대도시의 풍부한 인프라가 공존하는 도시로 앞으로도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근사한 구슬들이 정말 많고 좀 다른 시각과 감각으로 엮기만 해도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매력이 앞으로 충분히 더 커질 거라 생각해요.”

문화도시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수원은 현재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상황이고 올해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슬로건 아래 시작되었지만, 경쟁 구도로 가다보니 보편적인 사업구조 외에 수원만의 색깔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조의 인본사상과 실학사상의 역사적 가치 위에서 문화도시를 그려가고 있고, 동시대적 언어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도출했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결국 시민 주도의 인문적 실천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에 문화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시민주도 사업이라면 조금 추상적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원은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휴먼시티,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도시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120만의 메가시티는 수많은 도시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수원에는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 간 불균형, 아파트 중심의 주거생활에서 나오는 층간 소음 문제, 교통 정체, 기후위기, 부족한 문화복지에 대한 이야기 등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시민-전문가-행정의 다양한 문화적 실험과 협업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 과정들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칠 예정인가요?

“올해 3월 수원문화재단 내 신설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시민을 가로지르는 매개자·연결자·촉진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단계로 크게 주체, 공간, 브랜드 형성의 바탕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시민 주체’입니다. 재단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씨티메이커스(대화모임)를 지나 씨티플레이어(실천모임), 워킹그룹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공간 부분에서는 ‘동행공간’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동네서점, 카페, 갤러리, 공방 등 일상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관심사로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동행공간을 올해 20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내 문화도시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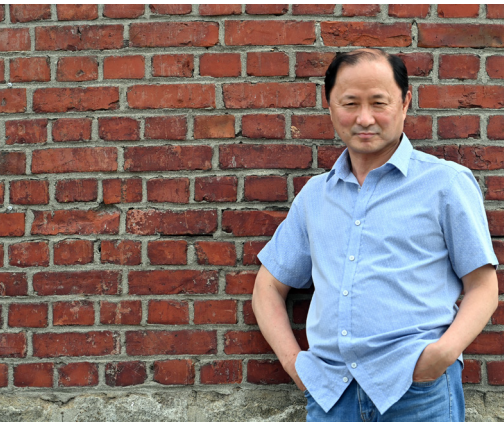
브랜드 부문에서는 대표사업으로 ‘인문도시주간’과 ‘공공예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들이 문화도시 수원을 좀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10월 말 다양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 수원 시민협의체 '수원나우어스'의 시민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시민협의체 'SUWON x NOWUS'의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민리더분들 중 도시다양성, 지속가능성, 수원형인문 등 3개 분과의 분과장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시다양성 분과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 만든 장동현님의 이야기



"재밌고 행복한 수원,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X나우어스의 시민분과장인 장동현님은 경기도청 도시재생사업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입니다.

동현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은 수원도시공사가 진행했던 '2020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요.

그만큼 수원의 도시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산지는 3년 됐습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관광관련 사업을 10여 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동현님은 수원 고등동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자신이 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이방인'만이 가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에 시작한 것이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입니다. 공유부엌과 작은 도서관, 강의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가 이번 '수원X나우어스' 시민리더로 참여한 것도 그가 해왔던 활동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일입니다.

앞으로 동현님은 별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원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을 교육해 관광 통역 안내사로 키워 관광객들을 모국어로 안내해 주는 모습이 동현님이 그리는 수원의 모습입니다.

"수원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다양한 시민들과 주체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될텐데요, 일상적으로 문화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형인문 분과

아티스트 랩의 대표 이루다님의 이야기

"시민리더 활동으로 큰 집을 짓기위한 벽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튼튼하고 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다님은 시민리더로 뽑히기 이전부터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다님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아티스트 랩'의 대표인데요. 시민 리더 활동도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수원은 예술하기 좋은 도시예요. 하지만 시각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티스트 랩은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있어서 다양한 예술을 보여주는 곳이기에 때문에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었어요"

이루다님은 수원이 여러가지로 풍족한 도시지만 시민들이 이런 자원들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그저 오래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얽힌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스토리를 좀 더 활용해서 알려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혜석 거리도 우리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거리이름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술가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루다님의 생각인데요. 특히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 함께 꾸민다면 좋은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버려진 공간을 청년 예술단체와 함께 예술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수원도 서울 농대 폐건물 같은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분과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루다님이 시민리더로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시민리더로 뭘 바꿀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 모인 사람들이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많은 벽돌이 필요해요. 시민협의체가 많이 모여서 의견을 내

고 만들어가면 더 튼튼한 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분과

시민리더와 도슨트 활동을 함께하고있는 김상래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고 오래가는 사업들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립미술관의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래님은 프랑스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아동미술과 글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미술관 도슨트로 있으면서 수원문화재단 씨티메이커스 활동에도 참여하고 동시에 수원X나우어스 활동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수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는 우연이 많았어요. 도슨트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서 지원했던게 선정됐어요. 평소에도 문화다양성이나 노인, 아이들 문제나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상래님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문화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미술관을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광고 아트스페이스의 달팽이 광장을 마켓이나 행사로 꾸며서 자주 들리도록 하던가 수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문화 가이드북이 돼 줄 '웰컴북'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수원을 투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관광지 위주가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갤러리를 밖으로 꺼내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유지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씨티메이커스나 플레이어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씨티메이커스,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씨티플레이어, 그리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협업하는 워킹그룹까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도시 수원'의 주체 시민들이 이끌어갈 방향인데요. 이번에는 씨티메이커스로 참여해 직접 실천까지 했던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진 정원,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다

씨티메이커스 '가치있게 같이살기' 모방원 대표님



모방원님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민입니다. 조경에 관심이 많고 노후를 위해 시민조경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적이 있다는 점 외에는 여느 시민과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조경부지가 많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입주민들과 함께 직접 꾸려가겠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씨티메이커스' 아이디어가 출발했습니다.

모방원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조경부지를 주말농장처럼 아파트 텃밭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농장 느낌으로 만들다보니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고, 직접 재배한 채소도 먹을수 있고 특히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로 주민들이 아파트 내 조경을 관리하면서, 조경비용 3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잡초가 생겨도 자신의 텃밭을 직접 관리하니 제초하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방원님은 씨티메이커스를 통해 이 아파트 텃밭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방원님과 주민들은 수국 삼목을 400여 그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광고산 인근에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정원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단절 극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씨티메이커스 '역동' 김화영 대표님



김화영님은 수원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된 학부모입니다. 많은 주부들처럼 남편의 직장을 따라 살 곳을 옮겨 왔죠. 신도시에 특히 많은 유형의 주부님들과 같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화영님이 '씨티메이커스'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9년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

과 함께 만든 모임이 점점 커진 덕분입니다.

이 모임은 처음에는 그냥 학부모 모임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친목을 도모할겸 만든 모임이었는데요. 다들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때쯤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울 나이가 돼 가면서 미리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그냥 모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도 하면서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체험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김화영님과 모임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역사 체험활동, 답사, 도자기만들기, 전통문양그리기, 떡 만들기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역사 콘텐츠를 레고로 직접 만드는 체험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씨티메이커스에 참여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이 프로그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네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열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 레고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아이들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에게도 경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김화영님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올 연말에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활동 중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찾아오다 씨티메이커스 '꽃맘센터대화방' 이진희 대표님



'꽃맘센터대화방'은 꽃맘센터 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씨티메이커스입니다. 꽃맘센터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교육지원 서비스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수원 관내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와 협업하고 있어요.

이 꽃맘센터 협동조합의 사무실에 2019년 즈음부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궁금해 했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시민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거죠.

때문에 이진희님은 수원 문화도시센터의

씨티메이커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중장년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을 했는데요, 기타를 치는 분들을 모아서 통기타 모임도 만들어서 복지관에서 무료로 연주회도 열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를 만들거나 그림책 수업도 했어요.

이진희님은 이 사업이 '느린 사업'이라는 점이 특히 좋았다고 합니다. 결과물을 당장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이뤄진다는 점이 말이지요.

"씨티메이커스처럼 시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슬로우 푸드같은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플리마켓에서 모인 엄마들, 환경을 지키는 업사이클링 작가가 되다

씨티메이커스 '지구인의 놀이터' 김민정 대표님



광고 신도시에 몇 년 전부터 작은 플리마켓 '여유'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음알음 알려져 있던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들 알지 못했죠.

플리마켓은 김민정님과 작가님들이 지난 2015년 설립한 '참 좋은 수다'라는 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수공예를 취미로 하던 사람들이 카페거리로 나와 플리마켓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체지요.

김민정님과 작가님들은 "다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쯤 씨티메이커스를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민정님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수공예 작품을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지구인의 놀이터'입니다. 지구인으로서 실컷 놀면서도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지키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는 벌써 3번이나 이뤄졌습니다. 특별히 예술을 배우지 않은 주부들이 이제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전시만으로 저희 활동을 알렸는데요, 이제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서 1인 창작자 '지구인의 놀이터'작가들의 수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QR

SUWON_NOWUS

문화도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합니다.




수원나우어스?

수원(SUWON)을 거꾸로 읽으면
나우어스(NOWUS)가 되는데,
이는 '지금, 우리' 함께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자
는 의미를 담은 문화도시 수원
시민협의체 명칭입니다.

SUWON X NOWUS


문화도시 수원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 시민협의체의 역할을 소개드립니다

문화도시 사업 참여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사업에 참여하며 생긴
다양한 의견을 통해
더욱 풍부한 문화도시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사업 참여

문화도시 시민리더
문화도시의 가치를 알리는 전파자!
워킹그룹 심의, 사업 모니터링
리더 회의를 통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구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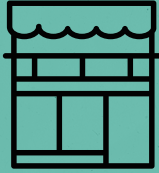
시민리더

워킹그룹 활동
도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사!
수원의 도시의제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합니다.



워킹그룹

동행공간
일상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문화도시 동행공간'
'공간실험단'
'취향존중 프로젝트' 사업 등
공간거점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동행공간